

심낙수 연구의 실증적 기초: 연보와 편년

김 수 진 *

-
- | | |
|-----------|--------------|
| 1. 머리말 | 3. 심낙수 작품 편년 |
| 2. 심낙수 연보 | 4. 맷음말 |
-

초록: 심낙수(沈樂洙, 1739-1799)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 분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환기의 이력과 정치적 노선을 위주로 개괄적 설명이 이루어졌다. 가문의 특징, 인척 관계, 교육 관계, 생애의 여러 국면과 전개과정, 그 글쓰기의 전모(全貌)에 관해서는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고는 현재까지 밝혀진 심낙수 작품 전체에 대해 편년(編年)을 수행하고, 그의 생평과 글쓰기를 통관(通觀)하는 작업으로서 연보(年譜)를 작성하였다.

한문학에서 연보와 편년 작업은 문헌 고증에 의한 정본(定本) 확정 작업과 더불어 실증주의 연구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따라서 『은파산고』(恩坡散稿)에 관한 서지적 고찰에 이어 심낙수 생 평과 작품에 관한 문헌 조사를 일단락함으로써, 심낙수 문학 비평의 성립을 위한 양대 초석(礎石) 작업을 완수한 것이다.

연보와 편년에 의거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심낙수의 문학을 18세기 조선의 사회역사적 문맥 속에서 그리고 심낙수 생애의 계기적 변화과정 속에서 사유하게 한다. 그러므로 개별 작품 속에 깃든 심낙수 평생의 문학 활동을, 필생의 글쓰기 속에 내재한 심낙수의 삶을, 그의 삶에 투영된 조선후기 사회역사의 향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기된다.

핵심어 : 심낙수, 『은파산고』, 연보, 편년, 실증주의적 문학 연구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심낙수(沈樂洙, 1739-1799)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 분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환기의 이력과 정치적 노선을 위주로 개괄적 설명이 이루어졌다.¹⁾ 가문의 특징, 친인척 관계, 교유 범위, 생애의 여러 국면과 전개과정, 그 글쓰기의 전모(全貌)에 관해서는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고는 현재까지 밝혀진 심낙수 작품 전체에 대해 편년(編年)을 수행하고, 그의 생평과 글쓰기를 통관(通觀)하는 작업으로서 연보(年譜)를 작성하였다.

한문학에서 연보와 편년 작업은 문헌 고증에 의한 정본(定本) 확정 작업과 더불어 실증주의 연구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와 편년이 그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이 작업이 대상 작가에 대한 문헌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서 작가의 생평과 글쓰기에 관한 정보를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지극히 공수(工數)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연보와 편년을 작품 탄생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여기는 막연한 인식이 통용되어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문학 연구가 개별 작품에 대한 인상 비평의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작가론과 작품론의 기본 전제로서 연보와 편년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 비평은 그 작가를 충만한 구체성을 띠는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그 작품이 뿌리내린 시공간적 제약과 글쓰기의 변화를 해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작가가 속한 시공간적 맥락, 그 안에서 부여 받은 작가의 존재 기반을 해아리고, 생래적 소여(所與)와 주체적 의지의 긴장으로 이룩된 생애의 질

- 1) 심낙수의 사환기 이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최성환, 2012 「임오화변 관련 당론서의 계통과 정조의 임오의리」, 『역사와현실』 85, 177-224면; 2016 「해제: 심낙수의 정치적 생애와 『정변록』», 『충역의 시비를 정하다: 『정변록』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10면 참조.
- 2) 한국문학연구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김명호, 1982 「한국문학 연구방법론과 문제점」,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60-66면; 1986 「국문학연구 방법」,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34-41면 참조.

적 변화과정을 탐색해야만 개별 작품이 갖는 생애사적 의미와 사회역사적 의의 그리고 문학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고는 심낙수 생애에 대한 통시적 구축물을 세우고 그의 글쓰기를 시계열화하였다. 『은파산고』(恩坡散稿)에 관한 서지적 고찰에 이어서 심낙수 생평과 작품에 관한 문헌 조사를 일단락함으로써, 심낙수 문학 비평의 성립을 위한 양대 초석(礎石) 작업을 완수하기 위함이다.³⁾

2. 심낙수 연보⁴⁾

1739년(영조 15년, 己未), 1세

2월 22일 오시(午時)에 서울 북부 대사동(大寺洞) 집에서 심형운(沈亨雲, 1713-1741)과 청풍 김씨(淸風金氏, 1713-1769) 사이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다. 효종대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沈之源, 1593-1662)의 6대손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字)는 경문(景文)이며 호(號)는 일환재(一丸齋), 은파(恩坡)이다.⁵⁾

1741년(영조 17년, 辛酉), 3세

9월 28일 증조(曾祖) 심사만(沈師晚, 1670-1741) 서거하다. 같은 해 10월 30일

3) 『은파산고』에 관한 서지적 고찰은 김수진, 2015 「『은파산고』(恩坡散稿)의 성립과 심노송(沈魯崇)」, 『한국문화』 72, 131-163면 참조.

4) 연보 작성 방식은 김명호, 1990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에 수록된 「朴燕巖先生年譜」 및 김명호, 2008 『황재 박규수 연구』, 창비에 수록된 「박규수 연보」를 참고하였다. 한편 연월일 표시는 모두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고, 官歷은 『恩坡散稿』에 실린 「年譜」, 「行狀」의 수록 내용과 『實錄』, 『日省錄』의 관계 기사를 비교해 실제로 관직을 제수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기술하였다.

5) 전거: 「年譜」(恩), 「行狀」(恩), 『靑松沈氏大同世譜』(青松沈氏大同世譜刊行委員會, 2002). 내용의 염밀성을 확보하고 추후 지속적 보완을 피하기 위해 연도별 서술의 전거를 주석에 제시하기로 한다. 『은파산고』 부록에 실린 「연보」와 「행장」의 경우 「年譜」(恩), 「行狀」(恩)으로 약술하고, 이하 『은파산고』 수록작도 모두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부친 심형운이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다. 조부 심동진(沈東鎮, 1694-1716)이 단명한 데 이어 부친 심형운도 관계에 나가지 못한 채 일찍 타계한 것이다. 심사만, 심동진, 심형운 삼대가 모두 독자(獨子)였으므로 가문의 존속이 심낙수에게 달려 있게 된다.⁶⁾

1748년(영조 24년, 戊辰), 10세

부친 타계 후 외가가 있는 경기도 광주(廣州) 사천촌(沙川村)에서 유소년기를 보내다. 모친 청풍 김씨는 좌승지 김고(金槺, 1670-1727)의 딸로 영조대 영의정을 역임한 김상로(金尙魯, 1702-1766)가 그 재종형이다. 김희로는 김종수의 조부이므로 심낙수와 김종수는 방계의 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

외가의 훈도 속에 자란 심낙수는 10세 무렵 외구(外舅) 김술로(金恒魯)의 소개로 여행인 한덕문(韓德文)을 숙사(塾師)로 맞아들여 『논어』, 『사기』 등을 배운다. 한덕문은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식견이 있고 오연한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인품에 감발되어 학업에 정진한다.⁷⁾

1752년(영조 28년, 壬申) 14세

3월 한산 이씨(韓山李氏) 이사질(李思質, 1705-1776)의 딸과 혼인하다. 이를 계기로 이사질의 아들인 이규상(李奎象, 1727-1799), 이규위(李奎緯, 1731-1788), 이규경(李奎景, 1735-1789), 이규창(李奎昶, 1743-1818)과 친분을 맺게 되다. 그들 가운데 이규상과는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망년지교(忘年之交)를 맺고 몰년까지 지기(知己)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에 반해 이규위와는 정치적 입장 차이로 평생 대립과 반목을 거듭한다.⁸⁾

6) 전거: 「遷墓誌」(恩), 「年譜」(恩), 「行狀」(恩), 『積善世家』, 『青松沈氏大同世譜』.

7) 전거: 「祭第三舅郡守金公文」(恩), 「韓潤卿墓誌銘」(恩), 「定辨錄」(恩), 「年譜」(恩), 「先府君言行記」(孝田散稿: 이하 '孝'로 약술), 『淸風金氏族譜』,淸風金氏世譜編纂委員會, 1989. 전거 가운데 「定辨錄」(恩)은 『충역의 시비를 정하다: 『정변록』 역주』(김용흠·원재린·김정신·정두영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8) 전거: 「定辨錄」(恩), 「年譜」(恩), 「祭伯舅一夢先生文」(弟田遺稿: 이하 '弟'로 약술), 『韓山

1754년(영조 30년, 甲戌) 16세

2월 1일 장녀 권씨 부인(1754-1815) 태어나다.⁹⁾

1755년(영조 31년, 乙亥) 17세

이후 수년간 과거 공부와 시문 수련을 병행하다. 심계지(沈繼之), 민백준(閔百準), 홍낙안(洪樂顛) 등 재경 노론 사대부와 폭넓게 교유하며 과거 공부에 힘쓰다. 아울러 17-18세에 김창협(金昌協)의 『농암집』(農巖集)을 읽고 문장 작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으므로 훗날 심노승 형제에게 ‘농암은 나의 선생이다’라고 칭했다는 일화가 전한다.¹⁰⁾

1759년(영조 35년, 己卯) 21세

1757년에 첫째 아들이 둘도 안 되어 요절한 테 이어, 이 해 둘째 아들도 태어난 지 삼 년만에 요절하다.

이 무렵 서울 주자동(鑄字洞)에 집을 마련하여 근처 동산에 화초와 나무를 심고 남원(南園)이라 이름 한다. 이 주자동 집은 1801년 칙매되기 전까지 심낙수 가족이 40여 년간 생활한 주요 거처가 된다. 심낙수는 남산(南山) 기슭에 있던 이 집을 매우 사랑해서 스스로를 남원거사(南園居士), 남원자(南園子)라 칭하고, 향리인 경기도 파주와 서울 주자동 집을 오가며 생활한다.¹¹⁾

1762년(영조 38년, 壬午) 24세

윤 5월 임오화변(壬午禍變)으로 당시 대리청정 중이던 왕세자(후에 장현세자로 추존)가 흉서하다. 임오화변의 기억은 심낙수가 줄곧 왕세자를 핍박했던 세력에

李氏麟齋公派世譜(韓山李氏麟齋公派譜所, 1994).

9) 전거: 「年譜」(恩), 『安東權氏大同世寶』, 安東權氏大宗會, 2005.

10) 전거: 「年譜」(恩), 「先府君言行記」(孝).

11) 전거: 「南園記」(恩), 「南園舊宅修改告土神文」(恩), 「年譜」(恩), 「自著紀年」(孝), 「寄沈景文」(『一夢稿』: 이하 ‘夢’으로 약술).

대한 강한 징토(徵討)를 주장하고, 충역(忠逆) 판정에 매우 예민한 입장을 갖게 한 역사적 경험으로 작용한다.

9월 6일 장자 심노승(沈魯崇, 1762-1837)이 충청도(忠淸道) 온양군(溫陽郡)에서 태어나다. 당시 장인 이사질의 임소가 온양군이었으므로 외가에서 태어난 것이다.¹²⁾

1763년(영조 39년, 癸未) 25세

증광시(增廣試)를 치렀으나 합격하지 못하다. 같은 시험에 처형 이규위와 김귀주(金龜柱)가 나란히 등제해 교분을 맺기 시작하다. 평소 삼낙수는 척리세력의 국정 개입을 비판했으므로 외척을 가까이 하는 이규위의 행동을 나무라다.¹³⁾

1764년(영조 40년, 甲申) 26세

진사 초시(初試)에 합격하다.¹⁴⁾

1765년(영조 41년, 乙酉) 27세

진사 회시(會試)를 치렀으나 합격하지 못하다.¹⁵⁾

1766년(영조 42년, 丙戌) 28세

심계지와 함께 과거 공부하면서 심계지의 중개로 그의 종형인 심환지(沈煥之, 1730-1802) 및 심환지의 아우 심위지(沈煒之, 1738-1775), 심형지(沈炯之, 1744-1799) 등과 교제하다. 이 해 이규위가 도성 남쪽으로 이사해 애오현(愛吾軒)이란 당호를 걸자 공명(功名)과 이욕(利慾)에 매몰된 삶을 경계하라는 뜻의 기문 「애오현기」(愛吾軒記)을 지어주다.

12) 전거: 「黨逆列傳」(恩), 「純忠列傳」(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英祖實錄』.

13) 전거: 「定辨錄」(恩), 「年譜」(恩).

14) 전거: 「年譜」(恩).

15) 전거: 「年譜」(恩).

4월 보름에 이규경, 이규창, 오재소(吳載紹), 최이형(崔履亨) 등과 함께 도봉산을 유람하고 다음날 수락산의 석림사(石林寺)에서 묵다.

9월 7일 차자(次子) 심노암(沈魯巖, 1766-1811)이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에서 태어나다. 당시 장인 이사질이 인천도호부사(仁川都護府使)에 임명되었으므로 외가에서 태어난 것이다.¹⁶⁾

1767년(영조 43년, 丁亥) 29세

가을 생원 초시에 합격하다.¹⁷⁾

1768년(영조 44년, 戊子) 30세

생원 회시(會試)를 치렀으나 합격하지 못하다.

10월 장녀를 안동 권씨(安東權氏) 가문의 권의인(權宜仁, 1753-1811)에게 혼인시키다. 권의인은 호서 산림(湖西山林)을 대표하는 권상하(權尙夏)의 5대손이자 산수현(山水軒) 권진웅(權震應, 1711-1775)의 손자이다. 따라서 이 혼인을 계기로 심낙수는 호서 지역 노론 사대부의 동향에 정통하게 되며, 훗날 재경사족과 재향사족, 관료세력과 산림세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같은 해 처형 이규위는 자신의 딸을 외척 김한록(金漢祿, 1722-1790)의 아들과 혼인시킨다. 이에 「평서에게 주다」(與平瑞)라는 편지를 보내어 이규위의 처신과 척리(戚里) 가문과의 혼인을 강하게 비판하다.¹⁸⁾

1769년(영조 45년, 己丑) 31세

7월 13일 모친 청풍 김씨 향년 57세로 별세하다. 15세에 심형운과 혼인하여 29세에 과부가 된 청풍 김씨는 손수 길쌈과 재봉을 하며 가계를 책임졌고, 경제적

16) 전거: 「愛吾軒記」(恩), 「遊道峯記」(恩), 「定辨錄」(恩), 「年譜」(恩), 「自著紀年」(孝), 『青松沈氏大同世譜』.

17) 전거: 「年譜」(恩).

18) 전거: 「與平瑞」(恩), 「送疫神文」(恩), 「年譜」(恩), 「自著紀年」(孝), 『安東權氏大同世寶』.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 심낙수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선비유사」(先妣遺事)에는 심형운 서거 후 가문의 장서를 지키기 위해 각 책마다 언문으로 제첨을 달고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소중히 보관했다는 일화에서부터 아들에게 해진 옷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학문에 정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일화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심낙수는 10월 5일 모친의 상례 절차 일체를 기록한 「지감록」(志感錄)을 짓고, 이어 10월 31일 모친의 생평을 기록한 「선비행록」(先妣行錄) 및 주요 일화를 기록한 「선비유사」(先妣遺事)를 짓는 한편, 산수현 권진옹에게 묘지명을 의뢰해 받는다.¹⁹⁾

1770년(영조 46년, 庚寅) 32세

4월 조부 심동진과 조모 해주 최씨(海州崔氏), 함양 박씨(咸陽朴氏)의 묘소를 파주 웅치(雄峙)에서 미륵산(彌勒山)으로 이장하다. 파주 웅치는 심낙수의 8대조 부터 선영이 있는 곳이지만, 조부모 삼위(三位)의 묘소는 지세가 불리해서 부친 심형운이 이장을 계획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타계하였다. 선친의 뜻을 이뤄야 한다는 모친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1769년부터 이장 절차를 끊어 1770년 4월에 삼위의 묘소 이장을 일단락한 것이다.

이 시기 심낙수는 가문과 관련된 글쓰기에 진력하여, 이장의 경위와 상세 일정을 기술한 「정천지」(定阡志) 및 「천묘지」(遷墓志)를 집필하는 한편, 5월 5일에는 「가승고사기문」(家乘故事記聞)을 지어 청송심씨 가문에 전래된 선조의 유사를 정리하고, 이어 「이후록」(貽後錄)을 지어 후손에게 내리는 훈계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 해 「원론」(原論) 상·하편과 「삼교통변」(三敎通辯)을 집필하였다. 「원론」은 이기(理氣)·도(道) 등 형이상학적 근본 개념과 예악(禮樂)·병형(兵刑)과 같은 제도의 근본 원리를 논한 글이다. 「삼교통변」은 도학의 주요 개념인 심성(心性)과 도덕(道德)의 의미를 분석하여 유가, 불가, 도가의 상호 관계성을 논변한 글이다. 「원론」과 「삼교통변」은 심낙수 사상의 정수를 담은 주요 저작으로 손꼽힌다.²⁰⁾

19) 전거: 「志感錄」(恩), 「先妣行錄」(恩), 「先妣遺事(恩)」, 「上權丈(四)」(恩), 「答權丈(一)」(恩), 「年譜」(恩), 「行狀」(恩), 『青松沈氏大同世譜』.

1771년(영조 47년, 辛卯) 33세

3월 14일 산수현 권진옹 제주도에 정배되다. 같은 해 3월 12일 『어제엄제방유곤록』(御製嚴堤防裕昆錄)에 기술된 증조 권상하에 대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소를 올린 일로 인해 유배된 것이다. 「상권장」(上權丈(五))은 연로한 나이에 유배를 떠나게 된 권진옹을 위로하는 편지이고, 「여권서」(與權婿)는 사위 권의인에게 보낸 편지로, 조부의 유배길에 시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²¹⁾

1772년(영조 48년, 壬辰) 34세

1월 14일 권진옹이 사면되어, 편지(「上權丈(七)」)을 보내어 축하드리다.

6월 「원론」 상·하편에 대한 발문을 쓴다.

7월 공조참판 김귀주가 홍봉한(洪鳳漢)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다. 심낙수는 김귀주의 이 상소를 대역(大逆)으로 규정하고, 그 해 겨울 이 문제를 두고 벗 심환지와 첨예하게 대립한다. 심환지는 공홍(功洪: 洪鳳漢 攻斥)을 주장하는 노론 남당계(南黨系)의 입장에 입각해 김귀주를 옹호한 반면, 심낙수는 김귀주의 남당(南黨)과 홍봉한의 북당(北黨)을 모두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한다.²²⁾

1773년(영조 49년, 癸巳) 35세

5월 충청북도 청풍군(淸風郡) 황강(黃江)으로 가 권진옹을 찾아뵙고 이틀간 묵으며 도학의 향방과 시세의 흐름에 대해 논하다.

가을 증광시에서 생원, 진사 초시에 모두 합격했으나 회시에 합격하지 못하다.

고우(故友) 홍낙안 요절하매 제문을 지어 영전에 곡하다. 홍낙안은 풍산 홍씨 홍유한(洪維漢)의 아들이다. 심낙수는 10대부터 홍낙안을 비롯해서 그의 백씨인 홍낙순(洪樂舜), 종형 홍낙현(洪樂顯)과 가깝게 교유하였다. 특히 홍낙안은 홍국영

20) 전거: 「定阡志」(恩), 「遷墓志」(恩), 「述先志」(恩), 「家乘故事記聞」(恩), 「貽後錄」(恩), 「原論」(恩), 「三教通緝」(恩), 『青松沈氏大同世譜』.

21) 전거: 「上權丈(五)」(恩), 「與權婿」(恩), 『英祖實錄』.

22) 전거: 「原論」(恩), 「定辨錄」(恩), 「年譜」(恩), 『英祖實錄』.

(洪國榮)의 재당숙임에도 불구하고 척리세력이 주도하는 남당과 북당에 모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심낙수와 의기투합하는 사이였다. 당시 양척론(兩斥論)을 견지했던 김원행의 문하생으로서, 김원행과 심낙수 사이를 중개하려 했지만 사문(師門)에 이름만 가탁하는 풍조를 꺼려한 심낙수의 반대로 주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홍낙안을 통해 심낙수는 당시 서울 노론 산림의 분위기를 접할 수 있었으며 김원행의 인품과 정치적 입장을 전해 듣고 평생 존모의 마음을 품었다.²³⁾

1774년(영조 50년, 甲午) 36세

봄에 딸을 데리고 황강으로 가 권진옹을 다시 찾아뵙는다. 권진옹의 산수현(山水軒)에서 열흘간 묵으며 학술의 분열과 세도의 와해, 산림학자의 동정, 사류(士類)의 변질에 대해서 밤새 대화를 나누다.

산수현이 자리한 황강에서 출발해 서벽정(棲碧亭), 삼선암(三仙巖), 구담(龜潭) 등 단양(丹陽) 일대를 유람하고, 여주(驪州)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다. 단양 유람에는 홍낙안과 권중정(權中正)이 함께 했는데, 이 유람에서 삽입여 편의 시와 「유단구기」(遊丹丘記)를 짓는다.

이 해 「태극오행일원만수도」(太極五行一原萬殊圖)를 완성하고 재실 이름을 ‘일환’(一丸)이라고 짓는다. 일환은 만물의 형상이 본래 하나의 ‘원’(圓)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점에서 뜻을 취한 것으로 심낙수의 자호(自號)이기도 하다. 종숙 심익운(沈翼雲, 1734-1783)이 재실의 기문을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백일집』(百一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²⁴⁾

23) 전거: 「留黃江二日, 與主人權丈談論意甚得, 權丈總從海謫還, 語及渡海事, 亦可聽, 歸有餘意, 寄一律」(恩), 「祭洪幼仁樂顏文」(恩), 「祭洪伯能樂舜文」(恩), 「定辨錄」(恩), 「年譜」(恩), 「行狀」(恩).

24) 전거: 「舟向丹丘洪德而同行至斗渼拈韻」(恩), 「丹山之行, 得詩三十餘, 忽思李士慎嘗與論詩頗相得, 以卷送之, 仍寄三首, 士慎盡室居公州也」(恩), 「黃江語錄」(恩), 「遊丹丘記」(恩), 「一丸齋銘」(恩), 「一丸齋自贊」(恩), 「年譜」(恩), 「追次沈景文樂洙十二夜黃江泛舟韻」(山水軒遺稿).

1775년(영조 51년, 乙未) 37세

봄에 내·외금강을 거쳐 해금강에 이르는 여정에 따라 금강산을 두루 유람하다. 돌아와 5월 5일에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를 짓다.

6월 18일 한나라 현량과(賢良科)를 본받아 영조가 친히 시험하는 어시(御試)에서 발탁되다.

8월 27일 산수현 권진웅 향년 65세로 별세하다. 사위 권의인의 부탁을 받아 묘지명을 짓다.

9월 직부전시(直赴殿試)에서 갑과(甲科)의 제일명(第一名)으로 급제하다. 관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임명되었다가 10월에 체직되다.

이 무렵 심환지가 김귀주 일파인 한후익(韓後翼)의 딸과 심노승의 혼인을 주선했으나 거절하다.²⁵⁾

1776년(영조 52년, 丙申) 38세

1월 예조 좌랑(禮曹佐郎)에 임명되다.

3월 5일 영조(英祖)가 승하하자, 「국애수최술회」(國哀受綴述懷)를 지어 애도하다.

3월 10일 정조(正祖) 즉위하다.

6월 지난 해 영조가 친시한 과거에서 급제한 책문을 엮은 후 발문인 「서어시권책후」(書御試策卷後)를 쓰다. 같은 달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에 임명되어 은진현(恩津縣)에서 시행되는 과거 시험을 주관하다. 천안, 덕평을 거쳐 은진현에 도착한 후 이규상이 은거하고 있는 공주(公州)의 정계(淨溪)를 방문하다.

9월 홍봉한과 대립하던 김귀주가 역모를 꾀한 죄로 흑산도에 위리안치되다.

12월 21일 울진 현령(蔚珍縣令)에 임명되어 나가다.

12월 28일 장인 이사질 향년 74세로 별세하다.²⁶⁾

25) 전거: 「入金剛, 至斷髮嶺下, 村家主人示一軸, 前輩入山時所題也. 索余詩, 題贈」(恩), 「叢石亭」(恩), 「遊金剛山記」(恩), 「御試策」(恩), 「侍講院誥議山水軒權公墓誌銘」(恩), 「定辨錄」(恩), 「年譜」(恩), 「行狀」(恩), 「次沈景文三日浦韻」(夢), 『英祖實錄』, 『安東權氏大同世寶』.

26) 전거: 「國哀受綴述懷」(恩), 「書御試策卷後」(恩), 「布諭應擧諸生文」(恩), 「策問(一)」(恩),

1777년(정조 1년, 丁酉) 39세

봄, 감시고관(監試考官)에 차임되어 정선, 영월 등지를 다녀오고, 다시 동당시관(東堂試官)에 차임되어 원주 일대를 다녀온다.

3월 울진현령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온다.

3월 19일 장남 심노승을 전주 이씨(全州李氏) 가문의 이의술(李義述)의 딸과 혼인시키다.

5월 임피 현령(臨陂縣令)으로 가는 심환지를 전별하다.

11월 장인의 초상에 조문하기 위해 공주로 가서 이규경의 매천신장(梅川新庄)에서 묵다.

12월 31일 심계지와 함께 김상임(金相任)의 집에 모여 염운시(拈韻詩)를 짓다.²⁷⁾

1778년(정조 2년, 戊戌) 40세

여름, 남산 집에서 퇴사(退士)로 자임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다. 1776년부터 대간에 의망되었지만 누차 관직을 제수 받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유자적하게 지내다.

11월 4일 통청 33개월 만에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에 임명되다.

11월 4일과 12일, 역모를 꾸민 김귀주와 화완옹주(和緩翁主)를 처형할 것을 주청하고 지평직에서 사임하는 상소를 연이어 올리다.

12월 4일 정조의 외조부 홍봉한(洪鳳漢) 별세하다.

12월 15일 송시열의 현손 송덕상(宋德相)이 초치되어 경연관에 임명되다. 이 무렵 홍국영이 정조에게 기용되어 정국을 장악하고 누이를 원빈(元嬪)으로 삼다. 홍

「布諭應舉諸生文」(恩), 「策問(二)」(恩), 「題淨溪李像之草堂」(恩), 「諭蔚珍縣鄉校儒生文」(恩), 「定辨錄」(恩), 「年譜」(恩), 「行狀」(恩), 『英祖實錄』, 『韓山李氏麟齋公派世譜』.

27) 전거: 「監試考官, 向寧越, 過登三陟竹西樓」(恩), 「差東堂試官, 轉向原州, 宿酒泉縣清虛樓」(恩), 「送沈輝遠出宰臨陂」(恩), 「爲哭外舅喪往公州, 宿慶而梅川新庄, 江雲峽雪, 心欣然樂之, 約慶而僦我數年居, 以償平生江湖之思, 而亦安可易得也, 歸有餘思, 紀以短篇」(恩), 「除夕, 與德承, 會金叔道相任家, 拈韻共賦」(恩), 「長子魯崇婚書」(恩), 「定辨錄」(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日省錄』.

국영은 전횡을 일삼기 위해서 송덕상과 그의 조카 송환억(宋煥億)을 지원해 산림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다.²⁸⁾

1779년(정조 3년, 己亥) 41세

2월 27일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임명된다.

3월 9일 역적 김귀주를 속히 처단할 것을 주청하고 사임하는 상소를 올린다.

6월 1일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된다. 6월 12일, 경연을 담당하기에 학식이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7월 17일 경연에서 『근사록』(近思錄)을 강론하고 곧이어 7월 29일 『논어』를 강론하다. 이 무렵 심이지(沈願之)와 교분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심환지의 재종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당과는 정론이 달라 가깝게 지내다.

9월 2일과 3일, 경연의 검토관(檢討官)으로 임시해 『논어』를 강론하다. 그 중 2일 경연에는 송덕상이 경연관을 담당하여 함께 배석하다.

9월 26일 홍국영이 치사(致仕)하고 사흘 뒤 그의 백부 홍낙순(洪樂純)이 좌의 정에 임명되다. 이 무렵 심낙수는 심환지를 통해 홍낙순의 희유를 받았으나 거절하다.

9월 28일 홍문관 부교리(副校理)에 임명된다.

10월 7일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

10월 20일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다. 10월 30일 간언(諫言)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것을 주청하고 사임하는 상소를 올린다.²⁹⁾

28) 전거: 「南園雨後」(恩), 「始拜持平, 乞解未遞, 受祿有感」(恩), 「辭持平疏」(恩), 「再疏」(恩), 「定辨錄」(恩), 『正祖實錄』, 『日省錄』.

29) 전거: 「辭正言疏」(恩), 「將上正言辭疏夜臥無寐」(恩), 「辭副修撰疏」(恩), 「辭副校理疏」(恩), 「六月十九日玉堂直中感懷」(恩), 「祭沈判府事願之文」(恩), 「辭持平疏」(恩), 「經筵講義」(恩), 「定辨錄」(恩), 『正祖實錄』, 『日省錄』.

1780년(정조 4년, 庚子) 42세

2월 14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된다.

2월 19일과 20일, 경연의 검토관으로 임시해 『논어』를 주강하다. 2월 27일에는 『동국통감』(東國通鑑)을 강론하고 29일에는 『논어』를 강론하다.

3월 7일 훈련도감(訓鍊都監) 안핵어사(按覈御史)에 임명된다.

3월 15일 사간원 정언으로 이배(移拜)되다. 3월 19일 사직 상소를 올려 국정을 농단한 홍국영과 송환억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주청하다.

9월 26일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된다.

10월 14일 송환억을 다시 논핵하고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다. 이 상소는 정조 초반 난역의 근본이 화완옹주에서 시작해 김귀주로 이어지고 다시 홍국영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하여, 척리 세력을 강하게 징토하는 한편 그에 결탁해 이익을 챙긴 송환억의 처벌을 주청하고 있다.³⁰⁾

1781년(정조 5년, 辛丑) 43세

3월 차자 심노암을 풍양 조씨(豐壤趙氏) 가문의 조진령(趙鎮寧)의 딸과 혼인시키다.

4월 18일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된다. 곧이어 4월 19일 송환억과 더불어 송덕상을 논핵하고 부교리직을 체차(遞差)해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이 상소는 1780년 10월에 송환억을 논핵한 상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해 12월에 송덕상이 조카 송환억을 비호하는 상소를 올리자 송덕상과 송환억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5월 3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된다. 5월 12일 김귀주를 토죄하고 부수찬 직에 서 사임하기를 주청한 데 이어 5월 22일 김귀주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장문의 상소를 다시 올리다. 그 가운데 5월 22일에 올린 상소는 김귀주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일군의 사대부 집단 전체를 문제 삼고 있어, 이후 심낙수가 노론 남당계의 집

30) 전거: 「罷諫職感懷」(恩), 「經筵講義」(恩), 「辭正言疏」(恩), 「辭校理待罪疏」(恩), 『定辨錄』(恩), 「祭沈判府事頤之文」(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중적 공격을 받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 상소는 척리세력과 결탁하면서 겉으로는 의리를 표방하는 사대부를 ‘자칭 사류’(自稱士流), ‘소위 사류’(所謂士流)로 지목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문맥상 자칭 사류는 김귀주 일파, 즉 노론 남당 계를 가리키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5월 29일, 정파간 진안책에 힘쓰던 정조에 의해 심낙수의 이름이 사판(仕版)에서 삭제되다. 이 무렵 심환지가 시찰(詩札)을 보내어 5월 22일 상소를 극력 비난하자 한사위도(閑邪衛道)의 뜻에서 주청했다고 소명하는 시를 지어 답하다.

9월 14일 송덕상 삼수부(三水府)에 정배되다.³¹⁾

1782년(정조 6년, 壬寅) 44세

2월 3일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숙명하지 않다.

3월 21일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었으나 숙명하지 않다.

4월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되어, 같은 달 26일과 29일 경연에 입시해 『맹자』를 주강하다.

이 무렵 함께 근무하던 교리 서유성(徐有成)의 시에 차운하여 홍문관의 업무, 풍광, 기물 등을 읊은 연작시 「옥당삼십영」(玉堂三十詠)을 짓다.

5월 11일, 25일 경연의 검토관으로 입시해 『맹자』를 주강하다. 25일 주강에는 홍양호(洪良浩)가 특진관(特進官)으로 배석하다.

6월 24일 이유백(李有白)이 효의왕후(孝懿王后)를 펁박하는 상소를 올려 문제 가 되다. 이 사건에 심낙수는 문랑(問郎)의 자격으로 추국에 참여하는데, 당시 판의금부사로 있던 김종수(金鍾秀)와 이최중(李最中)의 처벌 문제로 대립하게 된다. 심낙수는 양사(兩司)의 대신과 연명하여 이유백과 이최중을 철저히 심문할 것을 주청한 반면, 김종수는 이최중과의 친밀한 관계를 들어 사임을 청하였다.

8월 11일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다. 8월 19일 경연에 시독관(侍讀官)으로 입시

31) 전거: 「介子魯巖婚書」(恩), 「對宋德相陳辨仍辭副校理疏」(恩), 「辭副修撰疏」(恩), 「再疏」(恩), 「祭李平瑞奎緯文」(恩), 「自余陳疏, 積謗喧騰, 沈輝遠疑怒過深, 寄詩語多駭異, 次韻答之」(恩), 「尙有餘意更呈三絕」(恩), 『正祖實錄』, 『日省錄』, 『青松沈氏大同世譜』.

하여 『맹자』를 주강하다. 이 주강에 홍양호가 특진관으로 배석하다.

10월 홍문관 대신들과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역적 이유철(李有哲)과 송환구(宋煥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청한 일로 인해 파직되다. 이 무렵 심덕승의 집에서 심환지와 만나 신축년 상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일시적으로 화해하다.

11월 6일 강동현감(江東縣監)에 임명되다. 같은 해 강동현 출신 백천식(白天湜)이 송덕상을 신원한다는 구실로 역모를 끼어 처벌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조사를 겸하여 파견된 것이다.

12월 송환억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되다.³²⁾

1783년(정조 7년, 癸卯) 45세

평안남도 강동현 임소에서 계묘년 한 해를 보내다. 인근 성천군(成川郡)의 명승지 강선루(降仙樓)에 대한 시를 짓다.

1월 7일 송덕상 역적으로 논죄 도중 옥에서 졸하다.

1월 14일 족숙 심익운 향년 50세로 별세하다.³³⁾

1784년(정조 8년, 甲辰) 46세

봄,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부임한 정민시(鄭民始)를 만나다. 강동 지역의 경치와 풍속을 읊은 십이수(十二首) 연작시 「송양잡영」(松壤雜咏)을 짓다.

6월 강동현감에서 체임(遞任)되다.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 체직되다.

7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다.

9월 15일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고 이어 16일 교리에 이배되다. 9월 28일과 29일 홍문관 대신들과 연명하여 김귀주의 나국(拿鞠)을 누차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32) 전거: 「經筵講義」(恩), 「玉堂三十詠次徐君集有成」(恩), 「請寢鞠囚酌處之命仍辭館職徑出疏」(恩), 「教洪忠道觀察使金文淳書」(恩), 「定辨錄」(恩), 「贈沈江東景文序」(夢), 『正祖實錄』, 『日省錄』.

33) 전거: 「降仙樓」(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않다. 이 해 8월 정조는 흑산도에 위리안치한 김귀주를 육지로 정배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국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주청한 것인데, 이 일로 교리에서 파직된다.

11월 2일 부수찬에 임명되다. 다음날 김종수 일파인 현납 유악주(兪岳柱)가 심낙수의 신축년 상소 내용을 문제 삼아 변방으로 내쫓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다. 이에 같은 달 9일 유악주 상소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사직하기를 주청하다. 11월 22일 유악주의 이름이 사판에서 삭제되다.

12월 10일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다. 같은 달 1일 이조판서 김종수가 심낙수와 자신이 빙탄(水炭) 간이라고 말하고 사임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다. 이 상소에 대한 답으로 19일, 신축년 상소의 목적이 토역에 있는바 토역에는 당파의 차이와 빙탄의 분별이 없다고 소명하고 사직을 청하다.³⁴⁾

1785년(정조 9년, 乙巳) 47세

1월 세자시강원겸문학(世子侍講院兼文學)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 체직되다.

2월 부교리에 임명되었으나 숙명하지 않다. 이어 부수찬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 체직되다.

6월 7일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으나 숙명하지 않다. 같은 달 24일 함경도 병마평사(兵馬評事)에 임명되다.

8월 정조의 거듭된 재촉을 받아 임소인 함경도 경성(鏡城) 북병사(北兵使)로 떠나다. 강원도 금성(金城)을 거쳐 함경도 정평부(定平府)에 도착해 장시관(掌試官)으로 8일간 머무르다. 정평부에서 함관령(咸關嶺)을 지나 덕원부(德源府)에 유배된 이규위를 방문하다. 마천령(磨天嶺)을 건너 임지인 경성(鏡城)에 도착하다.

12월 병마평사가 북관감시어사(北關監市御史)를 겸하는 의례에 따라 호시(互市)를 관리하기 위해 회령(會寧) 지역을 다녀오다. 이즈음 함경도 지역민에게 칭송되

34) 전거: 「松壤雜咏十二」(恩), 「對兪岳柱陳卞疏」(恩), 「對金鍾秀陳卞疏」(恩), 「玉堂請寢龜柱出陸定配之命箭」(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는 역대 인물(김종서, 신립, 이순신, 송상현, 정문부, 김응하)을 노래한 「관북악부」(關北樂府)를 짓다.³⁵⁾

1786년(정조 10년, 丙午) 48세

1월 북관감시어사의 직무를 마친다.

2월 서울로 돌아온다.

4월 장자 심노승 홍역에 걸리다.

5월 7일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다. 같은 달 11일 문효세자(文孝世子) 5세의 어린 나이로 홍서하다. 22일 문효세자의 상사(喪事)를 알리는 고부재자관(告訃齋咨官)에 발탁되다. 27일 왕세자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의관의 나국을 건의하고 교리 직의 사임을 주청하다. 이 일로 파직되었다가 30일 예조정랑(禮曹正郎)에 서용되어 사행에 합류하다.

6월 1일 정조를 알현하고 서울에서 출발하다. 2일 파주 선영에 하직 인사하고, 3일 장남 심노승을 서울로 돌려보낸다. 당시 심노승은 홍역을 앓고 있었으므로 부친의 사행을 파주에서 전송하고 돌아왔는데, 병 때문에 사행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고 회고한 바 있다. 17일 압록강에 도착해서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만사(輓詞)를 짓다.

7월 9일 산해관(山海關)에 도착하다. 11일 무령현(撫寧縣)에서 서소신(徐紹薪)이라는 인물과 필담을 주고받다. 18일 북경에 도착해 다음날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지어 올리다.

윤7월 1일 국자감(國子監)에서 석고(石鼓) 등을 구경하고 전당(錢塘) 출신 진목(陳木)과 강소성(江蘇省) 출신 우우광(虞友光)과 필담을 나누다. 9일 우우광의 집에 방문하다. 15일 북경에서 출발하다.

35) 전거: 「北行至金城，以試期迫近，不得入金剛，悵然登披襟亭，有吟」(恩)，「咸興妓可憐，死久有名，其姪蘇情，亦能詩書，誦出師表竹枝詞，時年七十，余留定平試院八日，垂白頭抱諸公所贈詩卷來，感而題之」(恩)，「咸關嶺」(恩)，「磨天嶺」(恩)，「宿城津朝日軒」(恩)，「鏡城館，次農巖韻」(恩)，「監市，留會寧滌愁軒，夜坐有感」(恩)，「關北樂府」(恩)，「年譜」(恩)，「行狀」(恩)，「定辨錄」(恩)，「北方行寄北評事沈景文」(夢)，『正祖實錄』，『日省錄』。

8월 9일 암록강을 넘어 의주에 도착하다. 18일 파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다. 이 날 저녁 곧바로 부수찬에 임명되었으나 숙명하지 않아 21일 파직되다. 귀국 후 「연행일승」(燕行日乘)을 지어 병오년 5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사행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다.

9월 14일 문효세자의 생모 의빈 성씨(宜嬪成氏) 갑자기 타계하다. 이후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잇따른 죽음의 배후로 구선복(具善福) 등이 역적으로 지목되어 처벌된다.

10월 8일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다. 11일 교리직을 사임하면서 삼사(三司)의 공론(公論)에 따라 역적을 철저히 징토해야 한다고 간곡히 주청하다.

11월 9일 홍문관 교리에 다시 임명되었으나 숙명하지 않다.³⁶⁾

1787년(정조 11년, 丁未) 49세

1월 22일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다. 27일 수찬 직을 사임하면서 구선복의 역모와 관계된 인물들의 철저한 조사와 토역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소를 올린다. 이 상소는 정조 즉위 후 10여 년간 역모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사건의 확대를 경계해 토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진단하고, 국문을 통해 역모의 배후를 남김없이 조사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 상소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변록」에 따르면 심낙수는 역모의 배후에 임오화변을 일으킨 세력 및 김종수 일파가 있다고 판단했다.

4월 5일 우의정 유언호(兪彦鎬)가 1월 27일 상소의 과격함을 문제 삼아 심낙수의 파직을 건의하다. 13일 수찬에서 파직되다.

겨울 김종수가 인척 서유린(徐有隣)을 통해 회유를 시도했으나 거절하다.³⁷⁾

36) 전거: 「文孝世子輓詞」(恩), 「請議藥諸醫拿鞠仍辭館職疏」(恩), 「辭校理仍陳所懷疏」(恩), 「燕行日記」(恩), 「年譜」(恩), 「定辨錄」(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37) 전거: 「定辨錄」(恩), 「年譜」(恩), 「行狀」(恩), 「辭修撰仍陳所懷疏」(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1788년(정조 12년, 戊申) 50세

1월 15일 흥양 현감(興陽縣監)에 임명되다. 같은 날 심낙수는 정민시를 방문해 서 노론 시파와 소론의 연합 방안을 논의하고 집으로 돌아와 늦게 소식을 접한다. 16일, 17일 보직에 응하라는 연이은 하교(下教)에도 불구하고 삼사에 의망된 상황 이므로 숙명할 수 없다는 뜻을 승정원에 전달한다. 이에 18일 숙명하지 않은 죄로 흥양현에 정배되다.

2월 흥양현 운곡(雲谷)에 있는 선암(禪菴)에서 귀양살이를 시작하다. 22일 생일을 맞아 흥양현 운남산(雲嵐山) 수도암(修道菴)에서 불공드리다. 이로 보건대 심낙수가 귀양살이를 한 선암은 수도암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사미인가」(思美人歌)를 지어 연군지정(戀君之情)을 노래하다. 아울러 꿈에 죽신(竹神)을 만나 충허(沖虛)의 이치를 배운다는 내용의 「몽죽신부」(夢竹神賦)를 짓다.

8월 18일 처형 이규위 향년 58세로 별세하다.

11월 7일 유배지에서 『금체사목』(禁鼈事目)을 하사 받고 소지(小識)를 짓다.

12월 「황강어록」과 「정변록」의 집필을 마친다.³⁸⁾

1789년(정조 13년, 己酉) 51세

1월 해배되다.

2월 서울로 돌아오다.

7월 파주에 퇴거(退居)하다. 심낙수는 1784년 유악주의 비방 상소가 있은 후 관계에서 물려날 뜻을 품고, 1786년 사행에서 받은 비용으로 파주 선산 아래에 작은 집을 지어놓았다. 파산의 분암(墳菴)이라고 지칭되는 이 집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것을 결심하고 1789년 즈음 호를 ‘은파’(恩坡)로 바꾸었다. 은파는 임금의 은혜를 입어 파산에 퇴거한다는 뜻이다.

38) 전거: 「生日修道菴供佛疏」(恩), 「瀛州」(恩), 「自笑」(恩), 「修道菴」(恩), 「修道菴雜咏」(恩), 「思美人歌」(恩), 「夢竹神賦」(恩), 「內賜禁鼈事目冊子小識」(恩), 「黃江語錄」(恩), 「定辨錄序」(恩), 「年譜」(恩), 「行狀」(恩), 『正祖實錄』, 『日省錄』.

9월 김종수 우의정에 임명되다.

12월 8일 홍양호의 건의로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 체직되다.³⁹⁾

1790년(정조 14년, 庚戌) 52세

3월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 체직되다.

5월 대관 조진정(趙鎮井)이 지난해 홍양호가 심낙수를 사헌부 장령에 추천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하다.

7월 11일 이조판서 홍양호가 사직을 청하다. 같은 날 김한기(金漢耆)가 조카 김귀주를 대신해 심낙수를 비판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린다.

9월 장자 심노승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다.

11월 11일 희천군수(熙川郡守)에 임명되다. 체직을 청하고자 했으나 홍양현 유배 이후 외직 보임에 불응할 수 없어 부득불 숙명하다.⁴⁰⁾

1791년(정조 15년, 辛亥) 53세

1월 평안북도 희천군에 도착하다. 그 후 1792년 겨울까지 만 2년간 희천군수로 재임하면서 그간의 시문을 정리해 『은파산고』 원집(原集)을 엮어낸다. 이와 더불어, 「순충열전」(純忠列傳)과 「당역열전」(黨逆列傳)을 집필해 영정조대 충역(忠逆)의 인물을 정리하다.

1월 「희천군제병」(熙川郡題屏)을 지어, 어쩔 수 없이 변방에 부임한 지방관으로서의 소회를 읊다.

3월 장자 심노승 희천군에 도착해 묘향산을 유람하고 다음 달 서울로 돌아가다.

4월 21일 홍양호 평양감사에 임명되다.

겨울, 묘향산 승려 성기(聖機)의 시에 차운해, 유가와 불가의 이치가 본래 하나

39) 전거: 「恩坡銘」(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40) 전거: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임을 노래하다. 이 시를 지을 무렵 심낙수는 묘향산 금선대(金仙臺)에서 불공을 드리는 글을 지었으므로 승려 성기는 금선대에서 인연을 맺은 인물로 파악된다.⁴¹⁾

1792년(정조 16년, 壬子) 54세

1월 손자 심원열(沈遠悅, 1792-1866) 태어나다. 심원열은 차자 심노암의 아들이다.

2월 심노승 희천군으로 찾아와 다음 달 묘향산을 유람하고 4월에 돌아가다.

봄, 「위성관춘첩」(威城館春帖)을 지어 변방에 메인 외로운 신하의 처지를 노래하다.

10월 평안감사 홍양호가 당전(唐錢)의 무분별한 통용을 허락하지 말 것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 상소의 부본을 보내오다.

12월 희천군수의 임기가 끝나 체직되다. 9월부터 임소에 와 있던 심노승이 시종해 함께 돌아가다.⁴²⁾

1793년(정조 17년, 癸丑) 55세

1월 파주로 돌아오다.

4월 21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 체직되다.

5월 1일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어 사은숙배하다. 12일 김한기, 유언호, 조진정이 지난날 자신에 관해 올린 상소 및 연석(筵席)에서 했던 말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자신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운 심환지를 조사할 것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이 상소는 지난 1787년 4월에 있었던 유언호의 발언, 1790년 5월에 있었던 조진정의 상소, 1790년 7월에 있었던 김한기의 상소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10여 년 넘게 대립한 심환지와의 관계를 매우 소상히 진술하고 있다. 심낙수는 1787년 1월 수찬에

41) 전거: 「熙川郡題屏八首」(恩), 「香山僧聖機獻一詩次之」, 「金仙臺供佛疏文」(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김수진, 2015 앞의 논문; 2016, 「조선 시대 자편문집에 대한 탐사: 규장각소장 자편문집의 발굴과 분석」, 『서지학연구』 68.

42) 전거: 「威城館春帖」(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青松沈氏大同世譜』.

서 물러난 후 줄곧 외직에 보임되었으므로 삼사의 관원으로 소명할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이에 1793년 5월 수찬에 임명되자 그간 자신을 향해 이루어진 비판을 소급해 반박하고, 지금껏 걸어온 정치적 행보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비답을 받지 못한 채 상소가 봉합되어 돌아오자 숙명하지 않아 체직된다.

11월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에 임명된다.⁴³⁾

1794년(정조 18년, 甲寅) 56세

1월 어사로서의 직무를 마치고 장계(狀啓)를 올린다.

3월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임명되다. 신병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4월 제주목의 풍속을 순화하기 위해 박계곤(朴繼昆)과 그의 딸 박씨, 노비 고소락(高所樂)을 효자·열녀·충노로 표창하고 정려(旌閭)를 세우다. 그밖에도 제주 목사 재임시 심낙수는 유생을 시험해 선발하고, 윤음(綸音)과 어제(御製)를 보관할 누각을 건립하는 한편, 제주백성의 편의를 위해 제민창(濟民倉)을 기준 나주(羅州)에서 해남(海南)으로 옮기기를 주청하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임무에 매진한다.

6월 장자 심노승 찾아오다.

8월 태풍이 불어 제주에 큰 홍년이 들다. 다음 달 조정에 장계를 올려 곡식 2만 여섬을 요청해 기민 구휼에 힘쓰다.

9월 유구인(琉球人)이 표류해 그들의 송환 문제를 조정에 문의하다. 11일 제주 목사에서 체직된다.

11월 제주목에서 떠나다.

12월 파주에 돌아오다.⁴⁴⁾

43) 전거: 「對金漢耆俞彥鎬趙鎮并陳卞疏」(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44) 전거: 「論濟州事請選吏差代疏」(恩), 「濟州歸後納符陳民事疏」(恩), 「採訪孝烈忠請旌褒狀」(恩), 「孝烈忠旌閭舉行陳聞狀」(恩), 「大一觀記」(恩), 「義士旌閭記」(恩), 「孝烈忠旌閭記」(恩), 「陳島中民情移倉便否狀」(恩), 「三邑災歉請移粟賙販狀」(恩), 「琉球國漂海人事情陳聞狀」(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1795년(정조 19년, 乙卯) 57세

2월 차자 심노암 생원시에 합격하다.

5월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임명되었으나 지방에 있어 체직되다. 이보다 앞서 1월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던 심환지가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어 재직하던 상황이었다.

11월 처형 이규상 홍릉 참봉(弘陵參奉)에 임명된다.

12월 김종수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다.⁴⁵⁾

1796년(정조 20년, 丙辰) 58세

6월 19일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임명되어 같은 달 28일 사직 상소를 올리다.

파주에 거주하며 조하(朝賀), 제사(祭祀)가 아니면 입성하지 아니하다.

이 무렵 「사도론」(師道論)을 지어 임금과 스승을 동일시하는 군사론(君師論)의 문제점을 논파하다.⁴⁶⁾

1797년(정조 21년, 丁巳) 59세

여름, 기생 계섬(桂蟾)의 방문을 기념해 「증노기」(贈老妓)라는 시를 지어주다.⁴⁷⁾

6월 장자 심노승이 정민시의 추천으로 영희전 참봉(永禧殿參奉)에 임명된다.

1798년(정조 22년, 戊午) 60세

2월 벗 심계지가 순 살이 넘어 숭릉 참봉에 임명되며, 소식적 함께 공부했던 추억을 회상하고 그의 불우함을 위로하는 시를 지어 보내다.⁴⁸⁾

45) 전거: 「一夢老友除寢郎, 年躋七十, 寄五絕句, 替面亦不修起居禮也」(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正祖實錄』, 『日省錄』.

46) 전거: 「辭刑曹參議疏」(恩), 「師道論」(恩), 「年譜」(恩), 「行狀」(恩), 「自著紀年」(孝), 『日省錄』.

47) 전거: 「贈老妓」(恩), 「桂蟾傳」(孝), 「年譜」(恩), 『日省錄』.

48) 전거: 「寄崇陵寢郎沈德承」(恩), 『日省錄』.

1799년(정조 23년, 己未) 61세

1월 2일 와병에 들다.

1월 11일 미시(未時)에 파주 분암(墳菴)의 정침(正寢)에서 서거하다. 3월 25일 경기도 파주 분수원(汾水院)에 묻히다.

1월 18일 처형이자 지기인 이규상 향년 73세로 별세하다.

5월 11일 장자 심노승 「선부군침질기」(先府君寢疾記)를 쓰다.⁴⁹⁾

1800년(정조 24년, 庚申)

6월 정조 승하하다.

7월 순조(純祖) 즉위하다. 순조 즉위와 동시에 정순왕후(貞純王后) 수렴청정이 시작되다.

12월 29일 채지영(蔡趾永)이 심낙수의 신축년 상소의 내용을 문제 삼아 관직 추삭(追削)을 건의하다. 수렴청정 중이던 정순왕후에 의해 관직이 추탈된다.⁵⁰⁾

1801년(순조 1년, 辛酉)

2월 26일 장자 심노승 경상남도 기장현(機張縣)에 정배되다.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僻派)가 국정을 장악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유배지에서 심노승은 선친의 생평을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하여, 1801년부터 1805년까지 「선부군언행기」(先府君言行記)를 집필한다.

이 해에 심낙수 가족이 40여 년간 생활한 남산 주자동 집이 척매된다.⁵¹⁾

49) 전거: 「年譜」(恩), 「行狀」(恩), 「先府君寢疾記」(孝), 『韓山李氏麟齋公派世譜』.

50) 전거: 「年譜」(恩), 「行狀」(恩), 『正祖實錄』, 『純祖實錄』.

『실록』에 의하면 정순왕후의 관직 추삭 명령은 1800년 12월 29일에 이루어졌는데 실제 하명 처분은 그 다음날인 1801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다. 「年譜」(恩)에서 심낙수 관직 추삭의 시기를 1801년 1월 1일로 기술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51) 전거: 「自著紀年」(孝), 「先府君言行記」(孝), 『純祖實錄』, 「沈魯崇年譜」(김영진, 1996 「孝田 沈魯崇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수록: 이하 서지사항 생략)

1802년(순조 2년, 壬戌)

1월 차자 심노암 유배중인 심노승을 대신해 선친의 연보 초고를 완성하고 「선군연보후서」(先君年譜後序)를 쓴다. 이 글에 따르면 심노승 형제는 본래 김희(金熹)에게 선친의 묘지명을 의뢰하려 했지만 행장 집필이 완성되기 전에 김희가 졸하여 계획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은파산고』 부록에는 심노승 형제가 쓴 행장과 연보만이 수록되어 있다.⁵²⁾

1803년(순조 3년, 癸亥)

6월 심낙수에 대한 행장 초고가 완성된다. 초고의 집필자는 차자 심노암이다.

7월 장자 심노승 행장 초고에 수정을 더한 후 「서가장초고후」(書家狀草藁後)를 쓴다.⁵³⁾

1805년(순조 5년, 乙丑)

1월 12일 정순왕후 승하하다.

7월 26일 심노승을 방면하라는 하명이 있었지만 대계(臺啓)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다.⁵⁴⁾

1806년(순조 6년, 丙寅)

1월 심노승 해배되어 6월 서울에 돌아온다.⁵⁵⁾

1807년(순조 7년, 丁卯)

3월 심노승 순조의 원릉(元陵) 행차에 격쟁(擊錚)하여 선친의 무고함을 호소하다.

52) 전거: 「先君年譜後序」(弟), 『은파산고』 부록에 실린 연보와 행장은 심노승 형제의 공동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부친 원고의 교수를 포함하여 이들 형제의 문필을 통한 각별한 관계맺음에 대해서는 유정열, 2015 「형제 관계 속에서 본 심노승의 문학 활동」, 『민족문화사연구』 59, 245-274면 참조.

53) 전거: 「書家狀草藁後」(孝), 「山海筆戲」(孝).

54) 전거: 「自著紀年」(孝), 『純祖實錄』, 『沈魯崇年譜』.

55) 전거: 「年譜」(恩), 「自著紀年」(孝).

4월 2일 심낙수의 관직 추탈이 신복(伸復)되다.⁵⁶⁾

1811년(순조 11년, 辛未)

1월 20일 차자 심노암 출하다.⁵⁷⁾

1812년(순조 12년, 壬申)

5월 19일 심낙수의 처 한산 이씨 별세하다.⁵⁸⁾

1813년(순조 13년, 癸酉)

3월 심노승 『적선세가』((積善世家) 집필을 시작하다. 『적선세가』는 청송심씨 가문의 연혁과 역대 선조의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도합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친 심낙수에 대한 기록이 절반을 넘는다.

6월 심노승 선친에 대한 「행장추록」(行狀追錄)를 쓰다.⁵⁹⁾

1814년(순조 14년, 甲戌)

6월 심낙수의 생평에 대한 기록이 포괄적으로 수록된 『적선세가』(積善世家) 완성되다.⁶⁰⁾

1824년(순조 24년, 甲申)

효전당장서본(孝田堂藏書本) 『은파산고』가 만들어지다.

심노승은 일찍이 선친 문집의 간행을 기도했지만 간비의 부족으로 끝내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에 차선책으로 효전당장서(孝田堂藏書)라고 찍힌 자신의 사고지(私稿紙)를 사용해 정사본(淨寫本) 세 부를 제작했는데, 현재 버클리대학교에 소장된 『은파산고』가 그 중 하나이다.⁶¹⁾

56) 전거: 「年譜」(恩), 「自著紀年」(孝), 『純祖實錄』, 「沈魯崇年譜」.

57) 전거: 「自著紀年」(孝), 『青松沈氏大同世譜』, 「沈魯崇年譜」.

58) 전거: 「自著紀年」(孝), 『青松沈氏大同世譜』, 「沈魯崇年譜」.

59) 전거: 「自著紀年」(孝), 「行狀追錄」(孝).

60) 전거: 「自著紀年」(孝), 「沈魯崇年譜」.

3. 심낙수 작품 편년

이상에서 고찰한 전기적 사실을 근간으로 심낙수 생애의 전개 과정을 짚어보면, 그의 일생이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유소년기(幼少年期)로, 생년인 1739년부터 1758년(20세)까지이다. 두 번째는 수학기(修學期)로, 1759년(21세)부터 1775년(37세) 과거급제 전까지이다. 세 번째는 사환기(仕宦期)로, 과거 급제 이후부터 1794년(56세) 제주목사 직을 끝으로 관직활동을 마감하기까지이다. 네 번째는 은퇴기(隱退期)로 1795년(57세)부터 몰년인 1799년(61세)까지이다.⁶²⁾

한편 현재까지 조사된 심낙수의 글은, 정고본 『은파산고』(奎15680)의 수록작을 위주로 해서 초고본 『은파산고』(古3428-820)에만 수록된 10편의 글과 『정변록』 속집(續集)이 존재한다.⁶³⁾ 이들 작품 전체에 대해 본문 내 밝혀진 창작연도 및 주변 진술을 근거로, 생애 시기별 저술을 정리해 표로 제시하기로 한다. 단, 전후 맥락과 방증 자료로 저술시기를 비정한 경우 작품명 앞에 '*' 표시를 넣어 추정작임을 명시하였다.

1) 유소년기의 저술

저술 시기	작품명
1754년(16세)	산문: *集勝亭舊址記
1757년(19세)	산문: 夢中質尤翁

61) 전거: 「貽後錄(奉先)」(孝), 김수진, 앞의 논문.

62) 심낙수 생애의 전개 과정과 각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는 김수진, 2017 「심낙수와 『은파산고』」, 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은파산고』, 8-18면 참조.

63)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심낙수의 『정변록』이 별도의 책자로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은파산고』 소재 『정변록』 2책에 새로 속집 2책을 더해 도합 4책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속집은 1788년부터 1797년까지의 정치사를 다루고 있다.

2) 수학기의 저술

저술 시기	작품명
1759년(21세)	산문: 先府君墓誌
1760년(22세)	산문: 楮島記, 棋銘
1761년(23세)	산문: 藥圃記, 菊隱齋記, 眉菴記, 太子神記, 紫雲山人眞贊
1762년(24세)	산문: 祭外祖母貞夫人徐氏文
1764년(26세)	산문: *呂巖客過洞庭圖贊, 先祖考寬菴府君墓誌
1765년(27세)	산문: 睡室贊
1766년(28세)	산문: 遊道峯記, *愛吾軒記, 觀世音像現瑞記, *積石山記
1768년(30세)	산문: 離女畫屏序, 祭第三舅郡守金公文, *送疫神文, *與平瑞, *長女權氏婦婚答書
1769년(31세)	산문: 紂志憾錄, (志憾)錄, *墓山記, *墓儀說, 先妣行錄, *先妣遺事
1770년(32세)	산문: *原論, *三教通辨, *定阡志(先山事實, 占山始末, 彌勒山記, 遷窓日記, 遷窓節目), ⁶⁴⁾ 遷墓志, 家乘故事記聞, 季舅通德郎金公行狀, 賴後錄(叙貽後錄, 坡岡守護節目, 祭禮, 風水論, 風水遺戒)
1771년(31세)	산문: *上權丈(五), *與權壻
1772년(34세)	산문: *原論跋文, *太極圖例, 太極圖序, 生日不炊頌, *上權丈(七)
1773년(35세)	운문: 萬山館望見杏花, 鄭進士忠彬爲看花來訪歸以杏花韻寄之時余纔赴舉不利頗有譏意次而答之, 庭中薔薇花開題寄李士愼度默, 壺矢篇寄沈德承繼之李士郁度文前一日爲投壺會, 南園四時, 畜狗行, 遜德承往平澤舟遊, 庭中白芍藥盛開, 四月望夜乘月訪洪德而樂顯, 翩夜德而又來話寄興求和, 白芍藥, 司馬哥, 道中觀刈麥, 省墓, 夕入黃山, 見女兒, 見外孫, 槿川大雨, 粢歌, 留黃江二日與主人權丈談論意甚得權丈纔從海謫還語及渡海事亦可聽歸有餘意寄一律, 權成卿中誠新築小齋扁退學示余諸君子詩要次其韻歸始次之寄題其末, 蜻蛉吟寄士愼, 夜坐次德而, 蝦蟆吟, 園中泉瀑大漲, 蟬詩寄士愼, 摘園菜, 鄭和伯在協挈家入鎮川峽中示余諸友贍行詩次韻贈之和伯松江相國祀孫盡室入山無所戀落落意可尚也, 送李平瑞奎縉歸鄉
1774년(36세)	운문: 送沈德承下進士第還鄉, 舟向丹丘洪德而同行至斗漢拈韻, 次德而, 上灘行, 金灘曉發, 棱碧亭, 三仙巖, 泛舟龜潭, 騎牛歌, 與權子詩中立舟遊孤山, 與主人丈泛月江中, 舟發黃江夕過彈琴臺, 神勒寺, 清心樓次板上韻, 過二陵, 下灘行, 漁歌, 丹山之行得詩三十餘忽思李士愼嘗與論詩頗相得以卷送之仍寄三首士愼盡室居公州也, 閔子平百準贈余一扇畫竹林泊船中一人醉臥有飄然凌霄之思遂題其上, 邁過沈輝遠煥之拈韻共賦, 九日與金伯敬魯直登高, 沈輝遠携酒來訪拈韻共賦時余病臥且有科期方做試策也, 臘月十日晚雨 산문: 遊丹丘記, 太極五行一原萬殊圖, *一丸齋自贊, *一丸齋銘
1775년(37세)	운문: 寄李像之奎像, 入金剛至斷髮嶺下村家主人示一軸前輩入山時所題也索余詩題贈, 夕登斷髮嶺, 長安寺, 天一臺, 萬瀑洞, 普德窟, 摩訶衍, 榆岫寺, 隱仙臺, 松林窟, 九龍淵, 海山亭, 海金剛, 三日浦, 海上感懷, 叢石亭, 賢良科被選特命再策科次居魁直赴殿試入侍集慶堂退歸 산문: *御試策, *御試再策, *御試策, 祝有年歲, 遊金剛山記, *登第告先墓文

3) 사환기의 저술

저술 시기	작품명
1776년(38세)	<p>운문：國哀受綏述懷，六月十九日，選部三舉余臺職皆副擬既又副擬忠清道都事時試土有揀選之命擬入上諭此人必善考試塗點下臣不勝感激納言主試皆非賤臣所堪任前後副擬可見其不稱而不意恩點始斬而終加臣固莫知天意也感而識之，發湖西試行到衿川，天安郡曉發，德坪店，暮渡錦江，入恩津試院，黃山書院八卦亭，扶餘懷古，題淨溪李像之草堂，丹陽李平子安中來訪甲午余入丹丘相見平子年少能詩卽席誦傳百餘篇瀟灑可聽至今不能忘今又相逢聯枕口占以贈，纔遞都事旋拜蔚珍縣令年荒有擇差之命而當路之意外之也上帝卽日辭陞入侍興政堂例有七事誦陳上敎臣侍從特除之前席溫音又及賢良科壯元臣通選而實未經侍從職上教恩也發行路中口占寄示京中諸友</p> <p>산문：書御試策卷後，*布諭應擧諸生文，*策問，*布諭應擧諸生文，*策問，祭諮詢權公震應文</p>
1777년(39세)	<p>운문：到縣題軒上，縣南五里有臨海臺或稱飛來峰公餘無事輒乘夕肩輿而至興劇戲題，仙槎雜詠，差監試考官向寧越過登三陟竹西樓，旌善郡，寧越錦江亭夜遊，拜六臣祠，過清冷浦，又差東堂試官轉向原州宿酒泉縣清虛樓，原州試院，因事件巡使自試院由水路直歸在官只二十四日也，縣有聖留窟佛影寺酒泉臺素稱絕勝未及一遊決歸悵然如失漫吟書懷，縣中士民舉狀願留巡使啓請還任啓辭闕縣民舉狀之實外循民請實不欲留之也戲題一絕，朝廷循例促還至中路拔絨而歸因巡使啓聞請罪就囚納供蒙放，寄題仙槎館，送沈輝遠出宰臨陂，罷官閒居，蔚珍縣民捕虎獻皮作坐薦山居侈物戲題一篇，爲哭外舅喪往公州宿慶而梅川新庄江雲峽雪，心欣然樂之約慶而僦我數年居以償平生江湖之思而亦安可易得也歸有餘思紀以短篇，歲時無以備餅飯鬻豹薦得錢六百五十以需用室婦有喜色戲題一篇，除夕與德承會金叔道相伴家拈韻共賦</p> <p>산문：*諭蔚珍縣鄉校儒生文，⁽⁵⁵⁾ 布諭應擧諸生文，策問，長子魯崇婚書，*蔚珍玉溪影堂尤齋遺像奉安時本縣儒生告文，*上金丈(二)，*長子魯崇婚書</p>
1778년(40세)	<p>운문：次德而直中寄示二韻，鄭和伯挽，南園雨後，聖上親臨夫子廟行酌獻禮賤臣以軍卿差西庶彙酌官前一日齋宿成均館曉日祗迎車駕于集春門外累年屏居之餘獲瞻羽衛不勝懼忭之忱漫吟書懷，西庶諸執事輪次奠酌余適當圃隱文忠公位感懷有吟，冬至差惠陵祭大祝宿齋室元陵象說咫尺瞻望感懷有吟，始拜持平乞解未遞受祿有感</p> <p>산문：辭持平疏，*再疏</p>
1779년(41세)	<p>운문：*正月花開偶吟示兒輩，*差元陵祭大祝將軍而退感懷有吟，*明人李文祥咏畫鳩春來風雨尋常事莫把天恩作已恩余有感焉而風雨已恩甚不穩改下二字吟成起句以李詩續之余居南園多鳩李詩咏畫余詩屬真鳩也，*將上正言辭疏夜臥無寐，王大妃殿端午帖，*六月十九日玉堂直中感懷，*直中寄贈韓汝成晚裕學士左遷關東佐幕之行</p> <p>산문：經筵講義(7月19日·7月29日·9月2日·9月3日)，*辭正言疏，*辭副修撰疏，*辭副校理疏，*辭持平疏，*教洪忠道觀察使李秉鼎書⁽⁶⁶⁾，*教平安道觀察使李徽之書</p>
1780년(42세)	<p>운문：罷諫職感懷，過夏，鄭進士忠彬安察訪祐舊日試園同伴相與來訪登園中小籠共賦</p> <p>산문：經筵講義(2月19日·20日·27日·29日)，*辭正言疏，*辭校理待罪疏，*教摠戎使徐有寧書</p>

64) 「先山事實」, 「占山始末」, 「彌勒山記」, 「遷窪日記」, 「遷窪節目」은 모두 '定阡志'에 수록된 글로서 1769년부터 1770년까지 진행된 조부묘 묘소의 이장에 관한 기록이다.

1781년(43세)	운문: 北寺洞訪桃花次人, 自余陳疏, 積謗喧搥沈輝遠疑怒過深寄詩語多駭異次韻答之, 尚有餘意更呈三絕, 晓覺枕上口占 산문: *對宋德相陳辨仍辭副校理疏, *辭副修撰疏, *再疏, *介子魯巖婚書
1782년(44세)	운문: 惠慶宮端午帖, 大殿端午帖, 玉堂三十詠次徐君集有成, 送李斯文儀周文徽遊楓嶺得梅 산문: 經筵講義(4月26일 · 4월 29일 · 5월 11일 · 5월 25일 · 8월 19일), *請寢鞠囚酌處之命仍辭館職徑出疏, 教黃海道觀察使黃昇源書, 教洪忠道觀察使金文淳書, 教咸鏡道觀察使徐有寧書
1783년(45세)	운문: 降仙樓
1784년(46세)	운문: 松壤雜咏十二 산문: 甲辰正朝陳賀箋文, 論濟州事請玉堂請寢龜柱出陞定配之命劄, *對俞岳柱陳卞疏, *對金鍾秀陳卞疏
1785년(47세)	운문: 北行至金城以試期迫近不得入金剛悵然登披襟亭有吟, 雲水篇, 中秋日宿釋王寺夜上上元庵, 高原館夜坐次韻壁上, 咸興妓可憐死久有名其姪蘇情亦能詩書誦出師表竹枝詞時年七十余留定平試院八日垂白頭抱諸公所贈詩卷來感而題之, 向文川東堂定平妓全蟾追及永興戲題送之, 永興, 樂民樓, 咸關嶺, 洪原館夜坐, 朝發利城途中, 磨雲嶺, 磨天嶺, 宿城津朝日軒, 會象臺, 鏡城館次農巖韻, 留鏡城一次贈閔通判慶世, 題茂山衙軒, 過五國城, 皇帝塚, 鐘城館, 載筆堂雜詠十二, 鏡判寄二律二絕要和步韻回寄, 洪都憲檢出補利城縣余到吉州相逢既別因鏡判見余鏡城詩步韻寄示要余再疊次送, 宿訓戎鎮, 大獵行, 撫夷鎮夕眺, 慶興衙軒夜坐次三淵韻, 西水羅, 愁州謠, 監市留會寧, 淩愁軒夜坐有感, 關北樂府
1786년(48세)	운문: 文孝世子輓詞, 산문: *請議藥諸醫拿鞠仍辭館職疏, *辭校理仍陳所懷疏, *燕行日乘 ⁶⁷⁾
1787년(49세)	운문: 送韓汝成殷州, 次李仲輝集斗送梨韻, 산문: *辭修撰仍陳所懷疏
1788년(50세)	운문: *夢竹神賦, *思美人歌九章,瀛州, 自笑, 修道菴, 茶荳糕歌, 儉客日習歌爲課余爲評品其腔調清濁漸習可聽, 清明, 余性疎慢宦遊遠方脫然無思家意南遷數月時有不能忘佩玦牢騷固有異於攬轡嘶馳之時而亦見年衰之候思念之至發之爲詩錄付書中,瀛州館留題次櫓軒李公壁上韻, 題壁,瀛州新守李君光遇皇明提督如松六世孫壬辰倭寇提督奉天子命將兵東救有大功既歸屬北虜據遼瀋明運將訖公証蠻戰死心揣虜必亂夏遣戒子孫東走朝鮮後如其訓世居春川李君武科仕宣傳今年戊申即明太祖建元之六回甲正月十二日己亥登極日干支適符聖上起感就北苑皇檀行殿拜禮招皇朝人後孫存恤特命光遇除守令盛典也余謫到瀛州數日李君蒞任來見氣骨頗元狀若有古名將餘風心奇之適聞福建人林爽文倡義起兵胡皇命將出証君慨然談兵氣奮勵不自勝令人起感遂書長篇寄意, 修道菴雜咏, 題山海關古將臺圖, 留題千燈山金塔寺 산문: *鄭君德均遺集序, *朴君洞玉遺藁序, 定辨錄序, 內賜禁菴事目冊子小識, 瑞鏹銘, 生日修道菴供佛疏, *海南大屯寺供佛疏, *大菴寺供佛疏, 黃江語錄, 定辨錄(原集), ⁽⁶⁸⁾ *與鄭判書民始, ⁽⁶⁹⁾ *與鄭判書 ⁽⁷⁰⁾
1789년(51세)	운문: 權君生萬居高城徵士紝之曾孫篤行有文識爲郡官所構謫興陽四十訪余鵬舍與余同庚與語耳聾不能聞輒索筆畫紙與爲談子瞻謂龍安君以眼爲耳吾以手爲舌皆天下異人不意余於君又有此事日從遊情親君善卜筮牢騷寂寞之中日所爲皆卜之卜已畫卦相親而笑余蒙恩先歸留別悵甚題贈五絕, 산문: *恩坡銘, 送疫神文

1790년(52세)	운문: 一夢老友寄詩坡山責余閑居無詩次其韻復之, 산문: *長子魯崇登進士告先墓文
1791년(53세)	운문: *熙川郡題屏八首, *大樂歌頌, *威城館春帖, *題寓農亭江壁, *郡齋寫景四首, *香山僧聖機獻一詩次之 산문: *寓農亭記, *金仙臺供佛疏文, ⁷¹⁾ *純忠列傳, *黨逆列傳
1792년(54세)	운문: *威城館春帖, 산문: *寓農亭記 ⁷²⁾
1793년(55세)	운문: *瀛州題屏, *題瀛州延曦閣 산문: *對金漢耆俞彥鎬趙鎮井陳卞疏, *書封還疏本後, 大一觀記, 義士旌閭記
1794년(56세)	운문: *思美感恩歌六章 *三月三日登南樓巡城州人上舍吳君霑隨之呼韻共賦, 與書院諸生遊謀龍頭 산문: *陳島中民情移倉便否狀, *論濟州事請選吏差代疏, *巡撫濟州因土民狀請營建大一觀奉安御製聖諭狀, *濟州歸後納符陳民事疏, *各屯馬場禁耕事宜狀, *探訪孝烈忠請旌褒狀, *孝烈忠旌閭舉行陳聞狀, *琉球國漂海人事情陳聞狀, *三邑灾歉請移粟賙販狀, 孝烈忠旌閭記, *超然亭記, *濟州歸告先墓文, 因濟州按覈事對右相李秉模筵奏陳卞疏 ⁷³⁾

- 65) 「諭蔚珍縣鄉校儒生文」은 올진현령 때의 글이다. 심낙수가 올진현령에 재임한 시기는 1776년 12월부터 1777년 3월까지이다.
- 66) 심낙수가 지제교를 겸임하여 지은 教書의 제작 시기는 『규장각소장문집해설18세기(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에 수록된 해설을 참고하였다.
- 67) 「燕行日乘」은 1786년 5월 22일부터 1786년 8월 18일까지의 사행 기록이다. 중국에서 초고를 잡고 귀국 후 교정을 더해 만들어졌으리라 추정된다. 이규상의 『一夢稿』에는 「題沈景文燕行日記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은 1791-1792년 작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심낙수의 『연행일승』은 적어도 1792년에는 별도의 책자로 제작되어 지인들에게 화람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68) 「定辨錄」(原集)은 「定辨錄」(續集)과의 구분을 위해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恩坡散稿』(奎15680)의 제10·11책에 수록되어 있다.
- 69) 『은파산고』 초고본(古 3428-820)에만 수록된 글이다.
- 70) 『은파산고』 초고본(古 3428-820)에만 수록된 글이다.
- 71) 「金仙臺供佛疏文」는 평안북도 희천군에 있는 금선대에서 불공을 올리는 글이다. 심낙수가 희천군수에 재임한 시기는 1791년부터 1792년까지이다.
- 72) 「寓農亭記」는 희천군수 재임시 글이므로 1791년부터 1792년 사이의 작품이다.
- 73) 『은파산고』 초고본(古 3428-820)에만 수록된 글이다.

4) 은퇴기의 저술

저술 시기	작품명
1795년(57세)	운문: *—夢老友因兒子寄語退土無多上相多其言儘然亦非余意也寄詩以謝, *—夢老友除 寢郎年躋七十寄五絕句替面亦不修起居禮也
1796년(58세)	운문: *入城夜大雨風雷隣居朴承旨奎淳送詩次韻酬之, *題拈羞齋, ⁷⁴⁾ *題恩坡壁, *初夏小雨 산문: *辭刑曹叅議疏, *師道論, *定辨錄(續集)
1797년(59세)	운문: *贈老妓 ⁷⁵⁾
1798년(60세)	운문: 寄崇陵寢郎沈德承 산문: *祭沈判府事顧之文, 擬與沈煥之 ⁷⁶⁾

4. 맷음말

연보와 편년을 통해 드러난 심낙수 일생의 몇 가지 특징적 국면을 반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낙수 가문은 본래 노론계(老論系) 명문가였으나 노론이 소론(少論)과의
각축에서 승리하고 정국을 주도하던 영정조대 뚜렷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함으로
써, 그의 세대에 이르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부계 혈
족으로는 심환지(沈煥之)와 연결되어 있고, 다시 모계 친족으로는 김종수(金鍾秀)
와 연결되어 있되 모두 직계가 아니라 방계로 얹혀 있는 복잡한 인척 관계는, 심

74) 『은파산고』 초고본(古 3428-820)에만 수록된 시이다.

75) 이 시는 심낙수가 坡山에 퇴거했을 때 기생 桂蟾의 방문을 기념해 지어준 것이다. 시의
앞에 붙은 小序에 따르면, 계섬은 당시 坡山의 柴谷邨에 거주했는데 어느 날 나귀를 타
고 찾아와 지난 생평을 일일이 말해주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창작 경위는 심노승이 「桂
蟾傳」에서 중언한 작품 창작 배경과 문맥이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따라서 1797년 계섬
의 방문을 받은 후, 이를 계기로 심낙수는 「贈老妓」란 시를 짓고 심노승은 「桂蟾傳」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贈老妓」와 「桂蟾傳」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박현숙 박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소속)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76) 『은파산고』 초고본(古 3428-820)에만 수록된 글이다.

낙수 가문이 노론 내 핵심 가문에서 밀려났던 역사적 상황과 독학(獨學)으로 학문 수련을 했던 개인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그로 하여금 독특한 정치적·사회적 입장 을 갖게 한 배경이 되었다. 즉, 가문의 특수성에서 근원한 생래적 소여로 인해 그는 노론의 자장(磁場) 안에 있되, 그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노론의 당파의식 에 일정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미묘한 위치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둘째, 증조부, 조부, 부친에 이르는 삼대가 모두 독자(獨子)였고, 여기에 더해 조부와 부친이 모두 20대에 태계했으므로 부계(父系) 직계 인맥이 매우 공소하였다. 1741년에 증조부와 부친이 연이어 서거하자 가문의 존속이 심낙수에게 달려 있게 되는데, 당시 그는 3세의 어린 나이였다. 이에 후일 그는 「술선지」(述先志), 「이후록」(貽後錄) 등을 지어 청송심씨 가문의 연혁과 선조의 언행을 후세에 전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심낙수의 장자 심노승이 「술선지」와 「이후록」을 남긴 것, 선조의 사적을 집대성해 『적선세가』(積善世家)를 완성한 것도 부친의 가문의식을 계승한 것이다.

셋째, 수학기에 심낙수는 의식적으로 특정 학파에 들어가지 않고 독학(獨學)으로 학문 수련을 했다. 심낙수의 글이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특히 노론계 문인에게 서 흔히 보이는 이단(異端)에 대한 경직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의 생애사적 특징, 즉 독학으로 글쓰기를 배우고 사상적 자기 모색을 해나갔다는 사실을 감안해야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문장가로서 그는 모방에 급급한 당대 문단 풍토를 비판하고 이 시기 고문가로 추앙되던 황경원(黃景源)의 글을 혹평했다. 또한 사상가로서는 유(儒)·불(佛)·도(道) 삼교의 회통을 지향하고 육왕학(陸王學)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소위 노론 정통 문인과는 상당히 다른 결을 보이는 이들 작품은, 심낙수의 기질적 특징과 인간 자세, 여기에 학파라 든가 문파의 권위적 교육으로부터 벗어난 생애사적 궤적이 결부되어 만들어진 결과이다.

넷째, 심낙수는 지역과 당색에 구애되지 않는 폭넓은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심환지(沈煥之), 민백준(閔百準), 홍낙안(洪樂顏) 등 서울지역 노론 사대부와 교유했을 뿐만 아니라 권진웅(權震應), 이규상(李奎象)과의 인연을 계기로 호서지역 산

림(山林)의 동향에도 정통하였다. 관계 진출 후에는 당색의 차이를 넘어서 정민시(鄭民始), 홍양호(洪良浩) 등 소론계 인사와 부단히 소통하였다. 심낙수의 글이 조선후기 사대부 집단의 집합적 존재 양태와 그 분열과정을 심도 있게 증언하는 까닭은, 저자 심낙수가 재경사족과 재향사족, 관료세력과 산림세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안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심낙수 생애를 종횡축으로 나누어 볼 때 횡적 단면에서는 ‘이규상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종적 단면에서는 ‘심노승과의 관계’가 부각된다. 심낙수는 시종 무당(無黨)의 입장을 견지했으되 처형 이규상과는 평생에 걸쳐 매우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 자신과 달리 처사(處士)의 길을 선택한 이규상에 대해서는 ‘진선’(眞仙), ‘노선’(老仙)으로 칭송하며 몰년까지 지기(知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실제로 이규상은 심낙수 생전에 「연행일기」(燕行日記)를 읽고 장문의 감상시를 보냈고 『병세재언록』(并世才彥錄)에서 심낙수의 글쓰기를 고평하였다. 따라서 심낙수와 동인적 유대를 맺은 당대 인물로 이규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편 심낙수의 장자 심노승은 1797년에야 비로소 관계에 진출하므로 30대 전반 까지 부친의 임소(任所)와 향리인 파주, 서울 주자동 집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이런 까닭에 심낙수와 심노승의 글이 상호 텍스트성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단적인 예로 심노승의 「계섬전」(桂蟾傳)은 심낙수의 「증노기」(贈老妓)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심노승은 부친 사후 행장과 연보를 아우 심노암과 함께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50대에는 『적선세가』를 완성하였고 이어 60대에는 정고본 『은파산고』를 제작하였다. 심낙수 연보에서 1779년 몰년 이후의 기록은 대부분 장자 심노승의 행적에 기반한다. 따라서 심낙수 생애의 기록자이자 그 글쓰기의 계승자로서 심노승을 주목해야 한다.

여섯째, 심낙수의 생애는 유소년기(1739-1758), 수학기(1759-1775), 사환기(1776-1794), 은퇴기(1795-1799)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1788년(50세) 홍양현 유배는 심낙수 삶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작용하였다. 홍양현 유배는 심낙수가 중앙 정계에서 노론 시파로 활약하다가 벽파와의 갑축에서 밀려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의 정치 역정은 상승에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같이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심낙수 삶의 국면이 변화했다는 점은, 작품세계의 변모상과도 부합한다. 40대에 쓴 상소류의 글은 『정조실록』 및 『일성록』과 같은 관찬 사료에 수록되어 정사(正史)로서의 위상을 부여 받는데 반해, 50대의 대표작 「정변록」과 「황강어록」은 전야에 퇴거한 인물의 자기 소회이자 야사(野史)로서의 성격을 아우른다. 서로 다른 빛깔을 띠는 이들 작품은, 시대의 주역에서 시대의 증언자로 변화해간 심낙수 삶의 국면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연보와 편년에 의거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심낙수의 문학을 18세기 조선의 사회역사적 문맥 속에서 그리고 심낙수 생애의 계기적 변화과정 속에서 사유하게 한다. 그러므로 개별 작품 속에 깃든 심낙수 평생의 문학 활동을, 필생의 글쓰기 속에 내재한 심낙수의 삶을, 그의 삶에 투영된 조선후기 사회역사의 향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기된다. 심낙수 문학 비평이 본고의 후속 과제인 것이다.

논문투고일(2017. 5. 24), 심사일(2017. 5. 25), 게재확정일(2017. 6. 8)

참고문헌

1. 자료

- 沈樂洙, 『恩坡散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15680).
 _____, 『恩坡散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3428-820).
 _____, 『恩坡散稿』, 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 소장본.
 _____, 『定辨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_____, 김용흠·원재린·김정신·정두영 역주, 2016 『충역의 시비를 정하다: 정변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權震應, 『山水軒遺稿』, 권희종 영인본.
 沈魯崇, 『積善世家』,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_____, 『孝田散稿』,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
 _____, 김영진 옮김, 2001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沈魯巖, 『弟田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沈翼雲, 『百一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李奎象, 『一夢稿』, 한국역대문집총서 570, 경인문화사 영인본.
 李奎象, 『并世才彥錄』, 한국역대문집총서 570, 경인문화사 영인본.
 _____,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997 『18세기 조선인물지』, 창작과비평사.

- 『安東權氏大同世寶』, 2005 安東權氏大宗會.
 『青松沈氏大同世譜』, 2002 靑松沈氏大同世譜刊行委員會.
 『清風金氏族譜』, 1989 清風金氏世譜編纂委員會.
 『韓山李氏麟齋公派世譜』, 1994 韓山李氏麟齋公派譜所.

-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2. 논저

- 김명호, 1982 「한국문학 연구방법론과 문제점」,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_____, 1986 「국문학연구 방법」,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 _____, 1990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 _____,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 김수진, 2015 「『은파산고』(恩坡散稿)의 성립과 심노승(沈魯崇)」, 『한국문화』 72, 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_____, 2016 「조선시대 자편문집에 대한 탐사: 규장각소장 자편문집의 발굴과 분석」, 『서지학연구』 68, 서지학회.
- _____, 2017 「심낙수와 『은파산고』」, 『은파산고』(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영진, 1996 「孝田 沈魯崇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朝鮮後期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4 「『孝田散稿』 해제」, 『효전산고』, 학자원 영인본.
- 유정열, 2015 「형제 관계 속에서 본 심노승의 문학 활동」,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 이동인, 2008 「恩坡散稿 解說」, 『규장각소장문집해설18세기(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최성환, 2012 「임오화변 관련 당론서의 계통과 정조의 임오의리」, 『역사와현실』 85,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16 「해제: 심낙수의 정치적 생애와 『정변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Abstract

A Study on Chronological list of Sim Nak-su's Life and Literary Works

Kim, Su-jin

Existing research on Sim Nak-su(沈樂洙, 1739-1799) primarily pertains to political history, exploring his political positions and activities as a bureaucrat. There are thus yet few studies concerning his life and experiences as well as his relationships with family, relatives, and friends.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 regarding the overall character of his writing. So, This paper makes a chronological list of Sim Nak-su's life and literary works as empirical basis for research.

With respect to Chosön classical literature, along with determining the definitive editions of texts, the task of producing chronological list of the author's life and works constitutes one of the cornerstones of empirical research. Elaborating upon bibliographic studies of Eunpasango(恩坡散稿), an anthology of manuscript copies of the works of Sim Nak-su, this paper presents a fact investigation about his life and writings. It thus completes two foundational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literary criticism pertaining to Sim Nak-su.

Key words : Sim Nak-su(沈樂洙), Eunpasango(恩坡散稿), Chronology of the author's life, Chronological list of the author's works, Empirical study on literature.